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7주일(목주기도 성월)  
제30권 45호(다혜) 2010-10-3

## [묵상]



성 베드로 사도 <1270년, 유리화, 중세국립박물관, 파리>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저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만한 믿음이면 한 마디의 말로도  
돌무화과나무는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지푸라기 하나도 제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인가요?

돌무화과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누구에게도 복종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을 복종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복종시키고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인듯이  
믿음이란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그저 했을 따름이라며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 행사들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br>● 성모회/자모회<br>● 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br>(생)이태호 바오로, 김기석 바오로, 민슬기 로사리아,<br>봉효운 솔리나, 한정희 프랑카 수녀                                                                                                                                       |
| 주 일<br>낮 미사 | (연)김몽돌 요셉, 박덕기 카타리나, 이규형 곤잘레스,<br>이은완 야코보, 신입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br>김인영 베드로,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br>엄은섭 도르테오<br>(생)주용범 아브라함, 김대우 비오 & 숙희 심포로사,<br>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고천용 & 규재<br>체칠리아,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체칠리아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하바쿱 예언서(Habakkuk) 1,2-3;2,2-4

화답송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1,6-8.13-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 음 루카(Luke)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240           | 246   |
| 봉헌  | 270           | 179   |
| 성체  | 418           | 280   |
| 파견  | In the Secret | 321   |

##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더구나 "정당방위는 타인들의 생명, 가정과 국가의 공동선  
을 책임진 사람들에게는 권리일 뿐 아니라 막중한 의무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침해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침해자가 이성을 사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  
에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  
는 그 일을 발생시킨 침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

56). 사형문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있다. 이 문제  
에 관해서는, 사형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사회와 교회 양쪽 안에서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형벌의 정의라는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 존엄성과의 일치라는 맥락에서, 따  
라서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의 일  
치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  
째 목적은 "범죄로 야기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공권력  
은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권리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그 범죄자가 자유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  
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은 또한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목적  
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도 완수하면서, 동시에 범죄  
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극  
과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  
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  
니면,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  
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그  
러한 경우는 실제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히 드물다.  
모든 경우에 있어 새로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설명하고 있  
는 다음과 같은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범죄자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방어하고, 공공 질서와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수단들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리  
한 수단들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한 수단들이 공동  
선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더 잘 부합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더  
욱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죄인이나 불의한 범죄자들의 생명에  
대해서까지도 이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면, "살인  
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절대적  
인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약하고 보호능력이 없는 사람  
들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타인들의  
거만과 변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느님  
계명의 절대적인 구속력밖에 없다. (◆계속)

## 티모테오가 받은 영

바오로 서간 중 3편의 서간, 즉 티모테오 전후서와 티토서는 18세기부터 “사목서간(Pastoral Epistles)”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대부분의 바오로 서간이 특정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목서간은 티모테오와 티토라는 인물에게 보내진 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서간의 내용으로 볼 때에 3편의 사목서간은 개인에게 보내진 사사로운 편지라기보다는 바오로가 지역공동체의 지도자였던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내는 공적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서간들을 통해 바오로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 잘못된 가르침 등에 관한 사목신학적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자신의 안수를 통해 티모테오가 받은 영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비겁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과 그렇게 갇혀 있는 바오로와의 관계를 티모테오가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바오로는 재차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오로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앙하기에 편한 세월을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박해의 공포나 감옥에 갇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일이면 성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교회와 세상의 대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 세상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 앞에서의 경외와 겸손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물질주

의 소비사회 안에서 가난과 절제에 대해 묵상해야 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세상의 이기주의 앞에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에 대해 역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오로의 시대와 우리의 세상 사이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감옥 같은 현실은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단한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감옥처럼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처럼 살고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오로는 역시 성령을 통한 “믿음과 사랑”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오늘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어조로 바오로가 말하는 신앙의 궁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무화과나무에게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해도 복종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복음은 같은 말씀을 전하며 아예 나무들이 자라는 “산울 (통제로!) 옮기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영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분명히 변할 것이라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수고로운 삶을 통해 세상 안에서 작은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의 복음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역시 잊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박윤희<br>스테파니아   | 신덕례<br>테레사  | 채승희<br>에스터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박혜경<br>레나타  | 이순자<br>비비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3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이호미<br>엘리사벳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이태호<br>바오로     | 김교복<br>레오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이희경<br>크리스티나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 병자 영성체 :

7일(목)오전 10시

- ◆ 성시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토런스 서구역

◆ 구역, 반 봉사자 연수

- 일시 : 오늘 주일(3일) 오후 1시~3시, 강당
- 구역장, 반장 연수 겸 피정이니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 백삼위 M.E.가족 기금모금 음식 판매

- 일시 : 오늘 2일(토) 특전미사, 3일(주일) 미사 전후
- 메뉴 : 장조림, 오징어채볶음, 콩자반, 오이장아찌, 멸치볶음, 무말랭이, 떡볶이, 녹두전, 돼지족발, 막걸리 등
- 문의 : 본당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루치아 부부 ☎(310)347-1665

◆ 전례분과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

- 일시 : 오늘 주일(3일) 오후 1시, 성전
- 새 신청자도 모두 참석 바랍니다.
- \* 문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 백삼위 골프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10월9일(토) 오전 9시20분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323-8100

◆ 까리따스 수녀회 생활성서와 신앙서적 홍보 및 보급

- 일시 : 10월9일 토요일특전과 10일 주일미사
- 한국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생활성서와 각종 신앙서적을 홍보, 보급하기위해 수녀님들이 본당을 방문합니다. 신앙생활에 양식이 될 좋은 책을 통해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생활성서사 대표 박연레 솔라 수녀

◆ 성탄 세레반(목요교리)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10월14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 중
- 예비자들과 대부모님들은 30분전에 모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총무 ☎(310)738-4387

◆ 남가주 여성 제32차 영어 푸르실료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8일(목)~21(주일)
- 장소 : 포모나 푸르실료 하우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트레아 간사 ☎(310)749-0276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행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김치판매에 협조해주신 교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139명을 팔았는데 재료를 제하고 \$1,354의 수익금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3일(주일) : M.E.(전교우에게 배추국 무료대접)
- 10월10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고천용 | 국세찬 | 김낙기 | 김성일  | 김성현 | 김우용 | 성전헌금                                 | 고천용 | 국세찬  | 김낙기 | 김성일 | 김우용 | 김원모 |
|----------------|-----|-----|-----|------|-----|-----|--------------------------------------|-----|------|-----|-----|-----|-----|
|                | 김원모 | 김유숙 | 김 은 | 김정엽  | 김찬구 | 박근식 |                                      | 김유숙 | 김 은  | 김정엽 | 김찬구 | 박종열 | 서성용 |
| 교무금            | 박종민 | 박종열 | 배태임 | 서성용  | 소성덕 | 송호창 | 성전헌금                                 | 소성덕 | 송호창  | 양영관 | 오세원 | 오수인 | 이경태 |
|                | 양영관 | 오세원 | 오수인 | 오일순  | 유근태 | 이경태 |                                      | 이병우 | 이석진  | 조준제 | 최기남 | 최상만 | 황인종 |
|                | 이병우 | 이석진 | 정연영 | 조준제  | 최기남 | 최상만 |                                      | 황지영 | 박제이콧 |     |     |     |     |
|                | 최수복 | 황인종 | 황지영 | 박제이콧 |     |     |                                      |     |      |     |     |     |     |
| 합계 : \$3,950   |     |     |     |      |     |     | 합계 : \$3,662.50                      |     |      |     |     |     |     |
| 미사헌금 : \$2,788 |     |     |     |      |     |     | 매론청년회 성전헌금 : \$702.50(미역 다시마 판매 수익금) |     |      |     |     |     |     |

## 공지사항

###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재차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서두르세요.

아직 새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주일미사 전후 현관에 마련된 접수처에 서둘러 마치기 바랍니다.

(Late Fee \$10 추가)

● 문의 : 주일학교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한국학교 이해레나 교장 ☎(310)347~8765

### ◆ 백삼위 성당 "청소년 오케스트라(가칭)" 단원 모집

● 대상 : 5학년~12학년 남녀 학생

● 자격 : 오케스트라에 편성된 악기 연주가능 학생(초보가능)

● 문의 : 김정화 소화테레사 ☎(310)597-2729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남가주 소식

### ◆ 작은 예수회 장애인 위한 '일일 점심 찾집' 행사

● 일시 : 10월9일(토) 오전 11시30분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인 시설(1137 Arapahoe St. LA 올림픽과 후버 근처)

● 순서 :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미사(이영찬 신부 집전)

● 메뉴 : 불고기 백반 \* 문의 : ☎(213)387-3301

### ◆ 가톨릭청년 만남의 행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 일시 : 10월9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만 25세 이상 미혼 가톨릭 청년 남녀 각 50명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412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저녁식사, 선물, 재미있는 이벤트 준비)

● 문의 : 박해열 서몬 ☎(213)-2052

###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93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수)

● 장소 : LA 성 바실 본당(661 S. Kingsley Dr.)

● 미사집전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 성 마태오 성당 성전전립 기금마련 현유복 신부님 작품전

● 일시 : 10월22일(금)~28(목)

● 개막 리셉션 : 22일 오후 6시~9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818)951-0879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연수 | 오후 1시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제 단체 모임의 날 |  |
|------------|--|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                                  |     |                                                                         |                                           |
|----------------------------------|-----|-------------------------------------------------------------------------|-------------------------------------------|
| 소공동체 부 장<br>차 장<br>차 장           |     |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br>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br>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변해경 올리야나<br>920-5153                                                    | 남명자 데레사 920-5153<br>10/8/(금)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박선화 안나 530-7702<br>10/9(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00-5612                                                    |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br>10/15(금) 오후 8시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803-7798 | 1   | 이진향 아메스<br>989-0366                                                     | 김주량 요한 989-0366<br>10/8(금) 오후 7시          |
|                                  | 2   | 이크리스 아카토<br>619-7763                                                    | 정알베르토 791-1374<br>10/2(토) 오후 6시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br>10/12(화) 오전 10시30분   |
|                                  | 4   | 이은록 요셉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최경숙 수산나 433-9075<br>10/15(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박광자 소화테레사 972-9193<br>10/8(금) 오전 10시30분   |
|                                  | 3   | 안희경 크리스티나<br>750-4051                                                   |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br>10/16(토) 오후 6시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2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br>10/9(토) 오후 7시 강당 |
|                                  | 3   | 대건회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해경 레나타<br>808-5005                                                     | 박홍룡 요셉 808-5005<br>10/9(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정훈모 바오로 377-1271<br>10/8(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br>10/8(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송준규 미카엘 796-6763<br>10/8(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도영옥 수산나 541-0767<br>10/12(화) 오전 10시30분    |

## 10월 전교의 달 말씀

## 어둠 속을 밝혀 주는 등불처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신앙인들은 지난 2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선교 교령, 2항), 언제 어디서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 개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있을 수가 없고, 교회로서는 그리스도 교회로 존립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새로운 감각으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로만 생각하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톨릭 신앙인의 수효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질 만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영세자가 상당히 나오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존 신앙인들이 쉽게 냉담 상태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며, 우리는 선교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족한 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2,44).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복음에서 더 할 수 없이 귀중한 보물을 찾았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즈음 우리가 걱정하듯이 세례를 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수가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의 선교사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 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의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이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그리이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1고린 1,17-25).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2장에서도 이 방향으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1고린 2,4-5). 사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 선포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범이신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지혜", "유식한 말",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이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그 지혜"(1고린 2,7)를 맛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히브 4,12) 하느님 말씀, 곧 "성령의 칼"(에페 6,17)을 늘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무기로 어려움을 용감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주변 세계에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1고린 2,9)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은 "어둠속을 밝혀 주는 등불"(2베드 1,19)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밝혀 줄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 이 병 호 주교